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여수 김석철

판소리성지 보성군, 제21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개최

내달 19일~21일 신명나는 소리의 향연



보성군에서 오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보성다향체육관과 판소리성지, 보성군문화예술회관 등지에서 '제21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를 개최한다.

보성군은 판소리의 분향으로서 서편제의 비조 박유전 선생과 보성소리를 정립한 정응민 선생, 조상현, 성장순 등 많은 명창을 배출한 판소리 명창의 산실로 대한민국 국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계승하기 위해 군은 매년 소리축제를 개최하여 경연대회를 통한 인재 발굴과 판소리의 명맥을 잇는 데 힘쓰고 있다.

이번 축제는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이희재를 맞아 우리나라 최고의 정통 판소리 축제로서 우리 소리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격조 있는 문화행사과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 등이 준비됐다.

주요행사로 첫날인 10월 19일에는 판소리 성지에서 서편제의 비조 박유전 선생을 비롯한 정재근, 정응민, 정관진 성우향, 성장순 선생을 기리는 합동 추모공연이 열린다. 정응민 생가에서는 판소리 다섯마당 완창 공연이 펼쳐진다.

둘째 날에는 기념식과 KBS 특집 축하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공연이 야외무대에서 펼쳐지며, 전국판소리·고수경연대회 예선이 시작된다.

마지막 날에는 전국판소리·고수경연대회 본선이 펼쳐지며, 축하공연, 타악 공연 그리고 주민들과 관광객이 하나 되는 '군민과 함께하

는 열린음악회'를 열어 퓨전국악과 가요, 트로트, 걸그룹 등을 망라한 화려한 공연을 펼친다.

이밖에도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정동극장 뮤지컬 '판'을 올리고, 서울시청소년국악단 초청연주회가 열려 풀려 있고 수준 높은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상시 행사(토, 일)로는 축제장에서 '연 날리기와 비석치기', '판소리 한 대목 배우기', '악기장과 함께하는 대금체험', '전연습학 한복 체험' 등 관객과 함께 즐기고 어울릴 수 있는 체험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보성·별교 곳곳에서 '소리 버스킹'이 예정되어 있어 풍성한 볼거리와 들을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전국판소리·고수경연대회의 명창부 대상은 '대통령상'과 시상금 2천만 원이 수여되며, 고수경연대회 명교부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학생부 종합대상에는 교육부장관상이 수여됨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실력 있는 소리꾼들이 대거 참여해 소리의 고장에서 열띤 경연을 펼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연대회는 판소리와 고수분야로 나눠 명창·명교부와 대학 및 일반부, 신인부, 학생부, 학생부종합 등으로 열리며, 예선과 본선으로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9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참가신청서를 보성문화원(061-852-2621)으로 접수하면 된다.

보성=안구일 기자

광양시 체육회 투명한 체육 보조사업 운영 다짐

보조사업 집행 및 정산 관련 교육 실시



광양시는 최근 광양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시 체육회 종무단체 담당자 50명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집행 및 정산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투명한 보조사업 운영을 다짐했다.

체육 보조사업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는 감사담당관실 최윤환 감사팀장을 초청해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예방감사위원을 목적으로 보조금의 이해와 업무처리 절차, 문제점 및 감사사례 위주로 이뤄졌다.

교육에 참석한 한 종무단체 담당자는 "보조금의 집행 요령과 감사 지적사항 등 실무와 직접 관계되는 내용으로 학습이 이뤄져 좋았다"며 "이번에 배운 내용들이 보조금 집행

과 정산에 직접적으로 큰 도움이 된 거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삼식 체육과장은 "보조금 집행에 있어 관련 규정·절차 등 집행기준을 명확하게 알지 못해 지적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위반사례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고 보조금이 올바르게 집행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종무단체 담당자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양=김승호 기자

마을계획 함께 수립할 '순천 덕연동 어벤져스' 모집

오는 21일까지 접수

순천시 덕연동행정복지센터가 오는 21일까지 마을계획을 함께 만들어 나갈 주민 '덕연동 어벤져스'를 모집한다.

'덕연동 어벤져스'는 동네 한 바퀴를 통해 지역의 자원과 문제를 발굴하고 마을 총회, 원탁회의 등 마을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할 주민 조직이다.

덕연동 어벤져스는 9월 중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10월 동네 한바퀴와 분과별 워크숍을 진행하고

올해 12월까지 마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를 위해 순천 YMCA와 순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시민소통과에서 전반적인 진행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덕연동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청소년과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61-749-8289)로 신청가능하다.

덕연동행정복지센터는 주민의 손으로 만들어진 마을계획을 바탕으로 덕연동의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구체적 사업을 발굴 할

계획이다.

마을계획을 통해 제시된 의제는 우선순위를 정해 시도 공모사업과, 동 자체사업을 통해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덕연동 조경훈 총무팀장은 "SOS 물길찾기 지도제작, 한평 텃밭 도시농부 사업 등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전국으로 전파한 동네로서, 2018년 마을계획 수립을 통해 다시 한번 주민이 주인인 동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종영 기자

순천시 농수특산물 미국 LA 교민 입맛 사로잡다

남도의 향과 맛 담아 美 현지서 판촉활동 활발



순천시는 장일종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단장으로 한 판촉팀을 꾸려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미국 LA 시온마켓에서 '남도의 향과 순천의 맛'을 담아 '슬로푸드'로 우수 농수특산물 판촉행사에 나섰다.

이번에 선보인 품목은 순천농협 남도식품, 매일식품, 낙안전통식품, 생지쌀, 씨스타, 경덕농수산의 김치류, 반찬류, 젓갈류, 장류, 보리떡, 약과, 누룽지, 해조류, 건어물 등 총 40여개 품목, 23만달러(한화 2억 6

천만원) 상당이며, LA 현지 교민들로부터 매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우수 농수특산물 LA 판촉행사는 16일까지 4일간, LA 캘리포니아 4개지점과 애들랜드, 샌디에고 시온마켓 총 6개 지점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판촉활동 단장으로 참여한 장일종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순천시의 우수한 농수특산물이 미주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보다 많은 제품들이 입점되어 우리 교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출을 확대해 나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8월까지 농수특산물 2900톤, 61억원을 수출하여 올해 목표 61%를 달성하였고, 급변 성공적인 판촉행사를 통해 올해 수출 목표 100억은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시, 시민 정신건강 증진에 힘써

정신건강검진·상담 비용 등 지원

광양시 보건소가 시민들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우선 스트레스와 우울증 발생이 높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만 19세 이상 광양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이번 사업은 광양 소재 정신과 의원을 방문해 정신건강검진과 상담 서비스를 받으면 되며, 1인당 최대 5만 원이 지원된다.

또 정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합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와 만성정신장애인의 기능장애, 사회적 장애 극복을 돕고 있다.

특히 지역 자원연계로 매주 목요일 정신과 전문의를 초빙해 진

행되고 있는 '마을 건강 주치의' 상담실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쌓여있던 고민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선자 건강도시팀장은 "이번 정신건강검진과 상담비용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건강한 정신이 함께하는' 웃음이 가득한 행복한 광양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노력할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심형읍 오룡3길 2(전라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로 통한 상담 무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의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맞춤형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